

■ 최경주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

우즈도, 싱도 '탱크'에 밀렸다



최경주는 4일 열린 미국프로골프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라운드에서 선두에 5차 뒤진 공동 7위로 출발했으나 초반부터 버디 쇼를 펼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1번홀(파4)과 3번홀(파4)에서 짐경다리 버디를 뽑아내며 대역전 드라마의 시동을 건 최경주는 5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몰아 빠뜨리고도 파를 잡아내 역전승의 기회를 마련했다. 한숨을 돌린 최경주는 6번(파4), 7번(파5), 8번(파3), 9번홀(파4)에서 4연속 버디를 성공시켜 선두로 뛰어 올랐다. 최경주는 11번홀(파5)에서 다시 한번 1타를 줄였지만 무어, 로드 캠프링(호주), 스콧 등이 1타차로 따라 붙어 우승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3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최경주는 그러나 15번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 우승에 한걸음 다가갔다. 16번홀(파3)에서 티샷을 벙커에 빠뜨린 최경주는 2m 파퍼트를 성공시켰고, 두번째 샷을 관중석으로 날려보낸 17번홀(파4)에는 4.5m 파퍼트를 성공시키며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다. 1타 뒤진 채 먼저 경기를 마친 무어

최종일 버디쇼... 5타차 뒤집은 역전극 18번 홀 환상의 벙커샷으로 우승 확정

가 연장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최경주는 18번홀(파4)에서도 두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렸지만 멋진 벙커샷에 이어 1.5m 파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경주는 "니클러스가 쓴 책을 꼼꼼하게 읽었고 니클러스의 경기를 찍은 비디오를 몇시간 동안 본 것이 오늘 역전승의 밑거름이 됐다"며 위대한 챔피언에 대한 예우를 표시했다. 9언더와 63타의 팽타를 휘두른 케니 페리(미국)가 캠프링과 함께 공동3위(15언더와 273타)에 올랐고 2언더와 70타를 친 스콧은 공동5위(14언더와 274타)에 그쳤다. '빅3' 우즈, 엘스, 싱은 나란히 5언더와 67타를 쳤지만 최경주를 따라 잡기에는 전날 벌어진 타수차가 컸다.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5타를 줄여 공동35위(4언더와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다음 목표는?

메이저 대회 정상 도전

시즌 상금 300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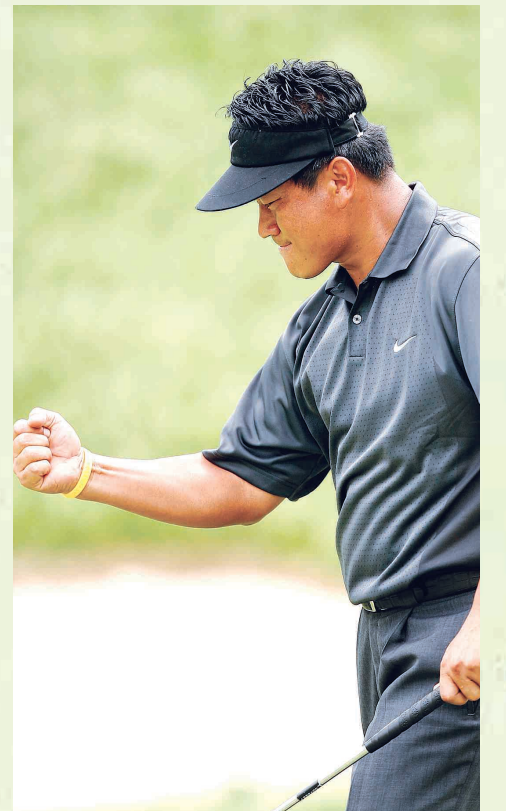
"이제 남은 것은 메이저대회 우승 뿐이다." '탱크' 최경주가 또 한번 세계 골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꿈처럼 보이던 '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제패' 가능성을 환하게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제패한 최경주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우승. 우선 이 대회가 지금까지 최경주가 앞서 우승을 차지했던 4개 대회에 비해 출전 선수 명단이 초호화판이라는 점이다. 최경주가 첫 우승을 신고했던 컴팩클래식과 탬파베이클래식(이상 2002년), 크라이슬러클래식(2005년), 크라이슬러챔피언십(2006년) 등 4개 대회는 타이거 우즈(미국)를 비롯해 최정상급 선수들이 쉬어가는 대회였던 것이 사실이다. '골프황제' 우즈는 물론 최정상급 선수가 총출동한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최경주가 똑같은 출전 선수 명단을 꾸려 치르는 메이저대회에서 얼마든지 정상 정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두번째 의미는 최경주가 처음으로 역전 우승을 거뒀다는 사실이다. 앞서 우승한 4개 대회에서 최경주는 1타차 선두(컴팩클래식), 5타차 선두(탬파베이클래식), 1타차 선두(크라이슬러클래식), 그리고 공동선두(크라이슬러챔피언십) 등 모두 리드를 잡은 채 최종라운드에서 나섰다.

■ 일문일답

“안되는 게 없었던 경기...자신감 부쩍 늘어”

“사실 우승까지는 예상 못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별들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특급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는 4일 감격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시상식을 마치고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있던 최경주는 “오늘은 안되는 게 없었던 경기였다”면서 “메이저대회나 다름없는 특급 대회 우승으로 자신감이 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주와 일문일답. -축하한다. 우승을 예상했다. -축하한다. 우승을 예상했다. -사실 우승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가 열심히 기

도해준 덕에 이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대회는 출전 선수 명단으로 보면 메이저나 다름 없다. -맞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우승 가운데 가장 값지고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스터스와 출전 선수도 똑같고 출전 선수 규모도 거의 비슷하다. 자신감이 부쩍 불었다. -우승의 원동력은. -파4홀과 파5홀에서 대부분 티샷을 페어웨이에 떨어뜨린 다음 샷이 아주 편하고 쉬웠다. 게다가 퍼팅이 아주 잘됐다. 쇼트게임도 너무 잘돼 볼이 어디에 떨어지든 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긴장도 안되더라. -스윙 교정의 효과가 열매를 맺은 건가. -우승까지 하고도 아직 멀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부근 말했듯이 롱



최경주가 17번 홀에서 4.5m 파 퍼트를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이 뼈두루 가지 않으니가 골프가 편해졌다. 무작정 멀리 치는 것 보다는 똑바로 겨냥할때로 볼이 가주니까 다음 샷이 쉽다. -마지막 3개홀에서 잇따라 그린을 놓쳤는데 긴장하지 않았다. -전혀 긴장이 안됐다. 롱게임 뿐 아니라 쇼트게임도 열심히 연마한 덕에 벙커에 빠지든 러프에 박히든 붙어서 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쇼트게임도 잘 됐지만 퍼팅이 너무 잘돼 빠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무조건 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니클러스와 18번홀 그린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말을 했나. -니클러스가 '당신이 최고다. 자랑스럽다'고 말했겠다. 내 칭찬을 많이 해주 너무 기쁘다. /연합뉴스

최경주 선수 역대 PGA 우승기록. 최경주 (崔京周) 출생일: 1970년 05월 19일, 출생지: 전남 원도, 신장/체중: 172cm / 80kg, 취미: 영화, 학력: 광주대. PGA 우승 경력: 2002년 미국프로골프(PGA) 컴팩클래식, 2002년 PGA 탬파베이클래식, 2005년 PGA 크라이슬러클래식, 2006년 PGA 크라이슬러챔피언십, 2007년 6월 PGA 메모리얼토너먼트. /연합뉴스그래픽

▲ 최경주가 4일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 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중 10번 홀에서 자신의 두 번째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